

라이덴 방식에 의한 주관적 생계비와 그 영향요인

The Levels and Determinants of Subjective Cost-of-Living by Leyden Approach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김경자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
Associate Prof. : Kim, Kyungja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문헌고찰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subjective cost-of-living and its determinants. 328 housewives who live in Seoul were selected as the sample of this study and surveyed by questionnaire method.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value of subjective cost-of living was 1,280 thousand won for the poverty level of living, 1,990 thousand won for the standard level of living, and 3,020 thousand won for the sufficient level of living. The determinants of the levels vary with the level of the living, however, the actual level of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the education level of respondent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all three levels of the subjective cost-of-living while the self evaluation for own life was negatively related with them.

I. 서론

생계비란 가계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비용을 말한다. 가계의 생계비 수준은 국민생활수준의 척도가 되므로 정부는 가계의 생계비 수준을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상태를 파악하고 여러

관련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생계비 추정결과는 구체적으로, 빈곤정책의 대상자 선정,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 결정, 소득세 면세점 설정 등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특히 최저생계비의 경우 그 수준에 따라 정부보조를 받거나 면세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지므로 사회의 발전수준에 따라 적절하고 신중

하게 추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생계비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 가령 가장 널리 쓰이는 최저생계비도 어느 개인 또는 가계가 최소한의 육체적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에서부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소외된 계층으로 남지 않을 만큼의 생활을 하는 정도까지 그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최저생계비 외에도 피구홀비, 최저생존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 등 다양한 수준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생계비 개념이 존재한다(楠田 丘, 1990).

생계비 기준이 다양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여러 정책의 기준이 될 생계비 수준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설정된 생계비 수준에 따라 여러 하위 집단간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은 1895년 앵겔에 의해 근대적 생계비 개념이 창출된 이래 지난 100여 년간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대표적 생계비인 최저생계비의 수준이나 내용을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시켜 오고 있다. 가령 영국의 경우 1901년 라운트리는 '최저한의 동물적 생존'에 필요한 영양만을 고려하여 빈곤선을 정하였으나 1930년대에 타운센드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 경험이 불균형적으로 증가하는 지점의 소득을 고려하여 상대적인 빈곤선을 설정하려고 시도하였다(Monroe, 1974).

우리 나라의 경우 생계비 개념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령 대표적인 생계비 추정기관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작업에 사용될 최저생계비만을 추정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임금협상을 위해 근로자 표준생계비에 가까운 개념만을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설정을 위해 생계비를 조사하는 한국노동 연구원은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만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의 생계비 측정은 주로 객관적 생계비인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 추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관적 생계비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 들어 우리 나라에 도입되었으나 이론적 생계비와 실태생계비를 추정할 때 애매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만 사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 외환위기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겪었음에

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의 주관적 생계비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객관적 생계비보다 주관적 생계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발전된 사회에서도 절대 빈곤층이 존재하지만 생존자체가 어려운 빈곤층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계층을 찾아내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여러 정책의 목적상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생계비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선을 설정하고, 임금협상 기준을 제시하고, 면세범위 및 소득세율을 결정하는 등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이 시대, 이 사회의 다수 구성원이 합당하다고 합의한 생계비, 이른바 주관적 생계비의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빈곤선이나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저생활, 표준적 생활, 풍요로운 생활 등 여러 다양한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주관적 생계비 수준을 추정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각 생계비 수준별로 각 소비품목의 구성비율이 다른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주관적 생계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결과는 이론적 생계비나 실태생계비를 추정할 때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할 생계비의 여러 수준을 정하는데 참고가 될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II. 문헌고찰

1.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

한 사회에서 한 가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양, 즉 생계비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객관적인 측정방법이란 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기준(예. 칼로리)에 의해 생계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측정되기 때문에 응답에 있어 사회구성원들간의 일관성이 높아 신뢰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관적인 측정방법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직접 어느 생활수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응답자들의

주관적 판단과 인식을 기초로 하여 생계비를 결정하는 것이다. Flower(1972) 과 Strumple(1973) 등은 경제적 복지란 궁극적으로 '가계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느낌' 또는 '스스로 판단한 욕망 충족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승신 외, 1994). 이처럼 주관적인 판단은 가계가 최종적으로 누리는 심리적 만족 그 자체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주관적 생계비는 객관적으로 측정된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객관적 생계비는 크게 이론생계비와 실태생계비로 나뉘고 이론생계비는 다시 전물량방식과 반물량방식으로 나뉜다. 전물량방식은 보통 라운드리 방식으로 불리는데 식비와 주거비 등 모든 소비품목에 대해 노동과학과 영양학과 위생학, 그리고 기타 생활과학에 기초해서 필요한 최소 물품량을 결정하고 그 필요량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한편 반물량방식은 식료품비에 한해서만 라운드리 방식을 적용하고 기타 품목을 포함한 총비용에 대해서는 식비에 엔겔계수의 역수를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실태생계비는 각 가계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평균, 또는 최빈값에 기초하여 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알렌·폴 방식이 있다(장현준, 1986; 박태규, 1991).

주관적 생계비 추정 방식은 본인 자신의 여건을 감안해 본인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대답하게 하는 대표시민 방식(Representative Citizen Approach)과 제 3자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대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전자는 라이덴 방식(Leyden Approach)으로 불리는데 '귀하의 경우 지금 사시는 곳에서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귀하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최저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통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여 생계비를 측정한다.

위에서 설명한 객관적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 측정방식은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객관적 생계비는 결국은 상당부분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고 주관적 생계비도 판단에 객관적 요소가 없을 경우 자료로서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

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완전히 해결해야 할 절대적 빈곤층을 구별해내기보다는 어떤 정책의 대상자가 될 상대적 빈곤층들을 파악해 내기 위해 생계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대변화에 따라 빈곤과 풍요의 개념에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관적 생계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우리 나라에서 생계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곳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주로 빈곤선을 설정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생계비 조사를 실시한다. 처음 조사는 1973년에 시작되었고 그 후 1978년과 1988년에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 조사부터 이론생계비 추정방식과 실태생계비 방식,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주관적 생계비 추정방식을 병행하였다. 1999년에도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1994년 조사는 2월과 6월 2차에 걸쳐 도시와 농촌의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 조사에서 주관적 생계비는 소득분포 상 하위 30%가 답한 최저생계비와 응답자들의 현재 가처분소득이 일치하는 점에서 산출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는 주관적 생계비 추정이 포함되었으나 최저생계비 개념 추정에만 국한되었고 또 조사대상 중 하위소득층 30%만이 그 추정에 참여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정한 전국 평균 이론적 최저생계비는 4인 가계인 경우 67만원, 라이덴 방식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4인 가계인 경우 1994년에 71만원 정도였다. 이 1994년 수치를 1998년도 물가로 환산한 가계원수별 일인당 이론적 최저생계비와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표 1>과 같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한국노총과 한국노동연구원은 매년 단위로 최저생계비를 추정, 발표해 온 기관이다. 한국노총은 단신 미혼남녀에서 5인까지로 설정된 각각의 가계모형에 대해 전국의 시장 물가를 직접 조사하여 생계비를

〈표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정한 전국 최저생계비(1994년 수치고 1998년 환산치)

	1인가계	2인가계	3인가계	4인가계	5인가계	6인가계	7인가계
이론적 생계비	206,402 (253,875)*	356,030 (437,917)	545,729 (671,247)	666,684 (820,021)	765,627 (941,121)	843,445 (1,037,437)	900,680 (1,107,836)
주관적 생계비	265,000 (325,950)	473,000 (581,790)	636,000 (782,280)	782,000 (961,860)	915,000 (1,125,450)	985,000 (1,211,550)	1,109,000 (1,364,070)

* ()안은 1994년 수치고(물가지수 100)를 1998년 수치고(물가지수 123)로 환산한 값임

계산하는 전물량방식을 사용하여 이론적 생계비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생계비는 저축과 조세공과금, 각종 사회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성격상 표준생계비의 개념에 가깝다. 한국노총은 근래에는 '최저'나 '표준'이라는 접두어 없이 그냥 '생계비'라는 용어로만 추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노총(1999)이 1998년 10월 서울, 대구 등 7대 도시를 조사하여 발표한 1998년 생계비는 〈표 2〉와 같다.

이 외에 주관적 생계비를 조사한 90년대 이후의 개인연구로 조성자(1991)와 박태규(1991)의 것을 들 수 있다. 조성자는 전물량방식과 라이덴 방식을 병행하여 도시 근로자의 생계비를 연구하였다. 그는 통상적 생계비라는 이름으로 '보통 수준' 또는 '풍요로운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총비용을 각각 적게 하여 주관적 생계비를 추정하였다. 또한 각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총품목을 모두 적게 하고 그 품

〈표 2〉 도시 근로자 가계원수별 생계비(1998)

	1인가계	2인가계	3인가계	4인가계	5인가계
소비지출	743,569	1,200,635	1,611,262	2,045,385	2,847,705
저축	99,463	99,463	99,463	70,379	105,568
조세공과금	72,762	123,873	193,373	341,492	619,838
총생계비	915,794	1,423,971	1,904,098	2,457,256	3,573,111

* 출처: 한국노총. '도시근로자 생계비'(1999)

한국노동연구원은 식료품비는 반물량방식으로, 그리고 비식료품비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의 소비지출 최빈값 계층의 비목별 지출로부터 비용을 추정하여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1999)에서 추정한 1998년 18세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는 419,977원이다. 이 수치는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1인가계 생계비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노총의 생계비 자료는 적정임금을,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각각 근거자료로 이용되고 있어 애초에 기준으로 잡은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목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합하는 방식으로도 생계비를 조사하였다.

박태규(1991)는 서울지역과 기타 도시, 농촌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라이덴 방식으로 주관적 생계비를 추정하였다. 그는 이 방식이 상대적인 빈곤개념에 입각하고 있어 객관적인 기준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고 사회전체의 변화가 생계비 추정에 반영되므로 이론적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주 부족한 수준'부터 '아주 넉넉한 수준'까지 생활수준을 7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수준을 나타내는 생활비를 적게 하여 생계비를 추정하였다.

조성자와 박태규의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최저

생계비 외에 여러 다양한 생활수준에서의 생계비를 라이덴 방식으로 추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관적 생계비의 하위내용이나 그에 대한 영향요인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미 8년 전의 자료여서 현재의 자료로 환산해 쓰는데 문제가 있다. 주관적 생계비는 산출년도의 사회문화와 생활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물가상승분만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치로 환산해 쓸 수 없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거주자 400명을 대상으로 1999년 9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가계구성원 중에서 한 가계의 소비지출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주부를 선정하였다. 가능한 한 다양한 소득수준의 가계를 고루 표집하기 위하여 강남과 강북지역의 초등학교 각각 3곳, 모두 6곳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또한 가구원수와 자녀 유무 및 가족생활주기별 차이를 통제하고 주관적 생계비에 영향을 미칠 다른 조건들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가진 주부로만 제한하였다.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384부가 회수되었고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2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척도구성

본 연구에서는 최저 생활수준과 표준적인 생활수준,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수준 세 수준에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관적 생계비를 라이덴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경우 서울에서 최저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만원 단위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음에 표준적인 생활수준과 풍요로운 생활수준에 필요한 생계비는 ‘서울에서 다른 보통 사

람들만큼 살려면 귀하의 경우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서울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산다는 말을 들으면서 넉넉하게 살려면 귀하의 경우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 측정하였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각각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총액과는 별도로 각 생활수준을 위해 어떤 비목에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8개의 소비지출 항목을 정하여 필요한 비용을 적게 하였다. 통계청 조사와 같은 9대 비목으로 나누지 않은 이유는 예비조사 결과 월세를 내는 소수의 가게 이외에는 주거비를 지출하는 가게가 거의 없어 이 비목을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가구용품 및 가구집기 비용도 마찬가지로 제외되고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분류하기 쉬운 기준에 따라 9대 비목을 8대 비목으로 재구성하였다. 8개 항목은 식비(외식비 포함), 의복신발비, 교육비, 교통통신비(자동차 세금과 보험료 포함), 보건의료비, 문화/여가생활비, 교제비(친구와의 교제비, 회비 포함), 그리고 난방비와 각종 공과금이다. 이 외에 정기적으로 비교적 큰 지출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적게 하여 별도로 정리하였다.

주관적 생계비가 어떤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월평균 가계소득과 응답자의 학력, 주부의 취업유무, 자가 소유여부, 그리고 자신의 경제수준에 대한 평가도 질문하였다. 스스로의 경제수준에 대한 평가를 자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다’에 1점, ‘아주 잘산다’에 10점을 주는 10점 척도를 제시하고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게 하였다.

3. 자료분석

조사자료는 SPSS P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세 생활수준에서의 주관적 생계비 수준과 실제소비지출액의 총액과 비목별 평균액수를 제시하였다. 총생계비1은 8개 항목에 대한 지출을 단순합산한 것이고 총생계비2는 8개 항목에 대한 지출과 관계없이 한 달에 필요한 비용총액을 적게 하여 구한 것이다. 총생계비2는 8개 비목에 대한 지출 외에 필요한 기

타지출을 모두 고려하여 응답하게 한 것이므로 총생계비1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자료를 통하여 각 생활수준별 주관적 생계비 수준을 추정하였다. 또한 각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비 하위 소비품목의 구성비율이 다른가를 분석하였다. 다음에는 각 생계비(총생계비2)를 종속변수로, 가계소득, 자가여부(자가=1, 비자가=0),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취업여부(취업=1, 비취업=0), 자기 경제수준에 대한 평가, 실제소비지출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하여 각 생계비가 어떤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36세에서 49세 사이였고 평균연령은 39.95세였다. 평균 가족원수는 4.28명이었는데 4인 가계가 65.9%를 차지하였다. 평균 자녀수는 2.13명이었고 자녀가 1명인 경우가 12.2%, 2명인 경우가 67.1%, 3명 이상인 경우가 20.7%이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53만 400원으로 1999년 2/4분기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가계소득보다 약간 높았다. 자기 집이 있는 가계는 64.6%였고 현재 주부가 취업중인 가계는 34.5%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6.0%, 고졸이 45.7%, 전문대졸 이상이 38.3%로 나타났으며 평균교육 연수는 12.7년이었다.

자기 가계의 경제수준을 평가하게 한 결과 스스로를 하류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3.7%, 중하류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28.1%, 중류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58.6%, 중상류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9.8%였다. 스스로를 상류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 (N=328)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연령(세)	36-40	121(36.9)	가족원수(명)	3	28(8.5)
	41-45	198(60.1)		4	216(65.9)
	46-49	9(2.7)		5	60(18.3)
	평균(S.D.)	39.95(3.40)		6 이상	24(2.4)
				평균(S.D.)	4.28(.83)
자녀수(명)	1	40(12.2)	학력	중졸 이하	52(16.0)
	2	220(67.1)		고졸	148(45.7)
	3	56(17.1)		전문대졸	32(9.9)
	4 이상	12(3.6)		대졸	92(28.4)
	평균(S.D.)	2.13(.70)		평균(S.D.)	12.7년(3.6)
자가여부	자가보유	212(64.6)	취업여부	취업	113(34.5)
	차가(借家)	116(35.4)		비취업	215(65.5)
가계소득 (월,만원)	100 이하	20(6.3)	자기경제 수준평가	하류(1-2점)	12(3.7)
	101-150	40(12.7)		중하류(3-4점)	92(28.1)
	151-200	76(24.0)		중류(5-6점)	192(58.6)
	201-250	60(19.0)		중상류(7-8점)	32(9.8)
	251-300	56(17.7)		상류(9-10점)	0(.0)
	301 이상	64(20.3)		평균(S.D.)	4.89(1.29)
	평균(S.D.)	253.04(109.01)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소득이 월평균 1500만원이라고 밝힌 응답자조차 스스로를 상류층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대한 자기평가의 평균점수는 10점 만점에 4.89점이었다.

2.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

라이덴 방식에 의해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 그리고 유락생계비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비교를 위해 실제 소비지출액도 같이 제시하였다.

각하는 유락생계비 302만원의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다.

조사대상 가계가 8개 항목에 실제 지출하는 평균 액수는 평균 167만 8700원이었고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쓴다고 생각하는 총액은 177만 1200원이었다. 총생계비2는 8개 소비항목에서의 필요비용을 모두 더한 총생계비1보다 10만원 가량 더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8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지출(예를 들어 주거비, 용돈 등)을 나름대로 계산하여 더하게 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생계비를 100으로 할 때 표준생계비는

<표 4> 라이덴 방식에 의한 주관적 생계비(N=328)

(단위: 만원, %)

항 목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	실제 소비지출
식비	33.51(27.8)	46.22(24.4)	64.82(22.5)	40.29(24.0)
의복신발비	8.80(7.3)	14.76(7.8)	27.89(9.7)	11.49(6.8)
교육비	25.16(20.9)	38.48(20.3)	56.65(19.7)	35.24(21.0)
문화/여가생활비	8.21(6.8)	15.93(8.4)	26.73(9.3)	10.95(6.5)
교통통신비	12.99(10.0)	27.74(14.7)	38.32(13.3)	24.98(14.9)
교제비	10.63(8.8)	16.98(9.0)	28.66(10.0)	14.15(8.4)
보건의료비	4.72(3.9)	7.89(4.2)	14.24(4.9)	5.73(3.4)
각종공과금	16.32(13.6)	21.23(11.2)	30.19(10.5)	25.04(14.9)
총생계비1	120.34(100.0)	189.23(100.0)	288.00(100.0)	167.87(100.0)
총생계비2	128.11	198.78	302.06	177.12

* 총생계비1: 8개 품목에 대한 각각의 필요비용의 총합

* 총생계비2: 조사대상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총필요비용

자료분석 결과 이 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128만 11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계한 4인 가족 이론적 최저생계비 82만원과 주관적 최저생계비 96만원보다 각각 46%, 25%나 높은 것이다. 다른 보통 사람들만큼 살기 위해 드는 비용인 표준생계비는 198만 7800원,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산다는 말을 듣고 넉넉하게 살기 위한 비용인 유락생계비는 302만 600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에서 제시한 4인 가계 기준 생계비 246만원은 본 조사의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표준생계비 199만원과 넉넉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

최저생계비의 1.5배 정도, 유락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2.4배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Schiller의 자료(양세정, 1999)에서는 한 가족이 ‘겨우 살아가기 위해’, ‘웬만큼 안락하게 살기 위해’, 그리고 ‘가족의 모든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소득의 비율이 100: 161: 400이었다. 미국에서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자료는 최저 생활수준과 풍요로운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생계비 추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식비였고 다음은 총필요비용의 20%를 차지하는 자녀교육비였다. 최저생계비 수

준에서는 3위가 난방비 및 각종 공과금이었는데 표준생계비와 유락생계비 수준에서는 교통통신비가 3위를 차지했다. 보다 높은 생활수준으로 갈수록 식비와 난방 및 각종 공과금의 비율은 줄어들고 의복신발비, 문화 및 여가생활비, 교제비와 회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교육비는 모든 생활수준에서 일관되게 20%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위에 포함된 지출항목 이외에 응답자들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제시한 기타항목과 항목별 필요비용은 <표 5>와 같다. <표 4>에 제시한 8개 항목 이외에 각 생활수준에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경조사비와 자녀 및 부모님 용돈, 부채와 이자 상환 비용, 신앙생활을 위한 헌금, 저축과 보험료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각 항목에 대한 필요비용은 최저생계비의 경우보다 표준생계비가, 그리고 표준생계비보다 유락생계비의 경우에 더 높았다. 이 차이는 특히 경조사비와 종교헌금, 그리고 저축과 보험 항목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가령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9.5%였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비용이 평균 10만원 정도였는데 풍요로운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유락생계비) 해당 비용이 80만원 정도로 나타나 그 차이가 가장 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10% 정도인 일부 가계만이 위에서 제시한 8개 항목 이외의 기타 항목에 대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 주관적 생계비의 결정요인

기존 생계비 자료는 주로 가계원수에 따라 따로 계산되어 발표된다. 여기에서는 자녀유무나 가계원수 등과 같이 명백하게 생계비를 증가시키는 요인 외에 다른 어떤 요인이 사람들의 주관적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하여 각 수준별 생계비(총생계비2)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가계소득과 실제 소비지출, 자녀수, 자가여부(자가=1), 주부 취업여부(취업=1), 응답자의 교육수준(년으로 환산), 그리고 자기 경제수준에 대한 평가를 독립변수로 하여 3개의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회귀분석 결과는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 그리고 유락생계비와 관련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계의 실제 소비지출액이 높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 그리고 유락생계비를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스스로의 경제수준에 대한 평가는 가계소득이나 실제소비지출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세 종류의 생계비 추정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계일수록 필요한 생계비의 수준을 낮게 잡고 있다. 이들은 아마도 원하는 생활 표준(standard of living)이 낮은 가계일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충분하다고 평가했을 것이며 보다 적은 액수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녀수는 최저생계비 추정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표 5> 기타 지출항목을 지정한 가계의 비율과 평균 필요비용(N=328)

(단위: %, 만원)

지출 항목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
경조사비	7.9(3.52)	7.9(8.19)	8.8(20.34)
가족원의 용돈	8.8(12.66)	9.2(15.88)	10.6(22.66)
부채와 이자 상환	5.4(8.90)	5.4(10.90)	-
종교헌금	6.0(7.83)	7.1(15.26)	7.1(37.44)
저축과 보험	9.5(10.05)	9.5(46.53)	11.6(80.12)
월세	3.1(24.50)	-	-
파출부 고용	-	-	1.3(48.33)
기타	2.2(3.76)	-	-